Awana Family

평촌교회 정진태, 김재원, 성민, 성원 가족

2006년 12월, 제가 24년간 다니던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저희 가족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란 땅을 떠날 때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오랜 시간 따뜻하게 지내오던 자리를 박차고 낯 설은 교회를 찾아 모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이 평촌교회에 자리를 잡게 만든 것은 바로 Awana였습니다.

아내인 김재원집사는 미국생활 중 Awana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었으나 저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Awana를 접하게 되었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게임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경쟁하며 돕는 방법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삼박자를 모두 갖춘 system을 찾게 된 것이죠. 교사들에게도 Awana를 섬기면서 아이들에게만 성경 말씀을 외우도록 하는 것이 가책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작고 예쁜 핀들을 하나씩 달아가는 재미에 말씀도 외우고 행사에 참석도 하고, 자연스럽게 열심을 내어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인 9살 성민이는 Sparks 고참으로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게임에서 새로운 게임과 기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늘 모임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나 오늘 OOO 잘 한것 같아,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하면서 스스로 대견스러워 하며 조금씩 지혜와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둘째 성원이는 아직 6살이라 Sparks를 할 수 없어 암송시간이나 게임시간이면 몸이 근질근질하여 가끔은 끼어들고 방해를 하기도 하지만 형, 누나들이 열심히 암송하고 게임도 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며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Sparks에서 영어 반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하여 영어를 잘하는 김재원집사는 아이들을 위해 말씀을 녹음하여 Homepage에 올려놓기도 하고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외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표시해주고, 읽어주며 열심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김재원집사와 함께 Red Team의 섬기며 Game 교사로 Sparks Game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하여 아이들과 뛰고 웃고 즐기다보면 나도 아이들처럼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평촌교회와의 만남, 그 속에서 Awana와의 만남, 그리고 따뜻한 교사들과 사랑스런 학생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가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인도하셔서 좋은 모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훈련 받으며 성장하게 하신 것이라는 확인을 갖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Awana를 통해 우리 가족의 신앙이 더 깊어가기를 기도합니다.

Jung, Jin-Tae / Kim, Jae-won / Sung-Min / Sung-Won

It was December 2006, when my family attended the last worship service of that year, and set forth our reluctant steps away from my beloved church of 24 years.
Could Abraham have felt that way leaving his home in Haran in order to follow God's command?
We had actually decided to leave the warmth and comfort of our home church of so many years and begin our search for some unknown church.
In all this confusion, the one thing that made my family feel right at home was Awana.

My wife, Jackie had served as an Awana leader back in USA, but it was all new to me.
It was the all-round system with all the important elements: memorizing the Scripture, learning to develop self-confidence and to compete and support through games, and getting closer to God through worship.

And for the teachers, there's the uneasiness on our conscience of not setting a good example for the kids and the joy of winning those adorable little pins which prompts us to memorize the Scripture ourselves and attend different events, thus naturally making us passionate teachers.
Our older son, Sungmin, who is nine years old, is a member of Sparks club. He loves learning the Scripture and new games. On the way back home he would get excited and say, "Mom, I was really good at OOO today. I tried so hard, and I made it!" He's growing in wisdom and faith and feeling good about himself.
Our younger son, Sungwon, is now six, and cannot be a member of Sparks club yet. Sometimes he gets tired of waiting and watching and gets in the way, but we are thankful that he is growing up surrounded by boys and girls learning the Bible and doing their best at games, too.

My wife and I are serving as English team leaders in Sparks club. Since my wife, Jackie, speaks English from living abroad for many years, she has put up her own readings of the English handbook on the church homepage to help kids learn them. She is a dedicated leader who tries hard to teach them, read with them, making marks on their books to help them.
I myself am leading the English team with my wife and serving as Sparks Game director.
After hours of running and laughing and having a great time with the kids, I feel as though I am one of them.
Meeting Pyungchon church, meeting Awana there, and all its warm-hearted teachers and adorable kids...
As I look back I've come to a firm belief that as Abraham had turned into that man he had become not by his own will but by God's work right from the start, what our family have become was through His training and His guidance to meet a great club, and to be trained and grow within.
As Israelites prospered in Canaan, I sincerely pray that our family's faith will become stronger through Awana club.